

금요 수필

두 할매의 마실길

재작년 2월, 영동할매가 며느리를 데려온 그날이 저...



송순녀 수필가

눈보라 치는 부인을 향해 달려 나간 것은 호랑이 피가 철철 흐르기 때문이었을까? 아니, 그럴 리가...

그래, 아직 두르락에 힘 있을 때 겪어보자. 혹시나 넘어지면 우리에겐 호랑이 연고가 있으니 무슨 걱정이랴...

"아따매, 뉴질랜드에 왔들이 얹게 나 많을지 하도 많이 부케로 구더기라 브이대하니 낀."

까지 땀방울 미호미호, 호호 한터 기도 부럽지 않았다. 물레 속닥거렸다. "오매, 우리 아직 미묘가 살아 있나 버."

처음 부안 마실 길을 알려준 이는 '강불처럼' 문인이시다. 가족들과 함께 부안 마실 길과 지리산 둘레길을 완주했다. 더 이상 걷지 못하겠...

알아전엔 그 이야기들을 묶어 '걸으면 열매나 행복한다' 심간을 출간했다. 또 아픈 이들에게 걷는 일은 선물이며 기적이다.

한 권의 책이 판부여되는 건 한걸음에, 한자씩 새겨 넣은 발자국들의 모음이다. 아름다운 결말이다. 길이 길을 부른다. 걸음수북 더 듣고 싶...

걸이로움의 연속이다. 뺨속까지 열혈 애환만이 되어간다. 옹포 곰개나무 길을 걷는 도중에 '이모한머니, 참 멋져요' 손녀의 문자가 도착했다.

\*송순녀 수필가는 2003년 12월 수필과 비평자로 등단했으며, 송평사 앞에서 백련대문을 운영하며 23년째 주옥길이라는 이름을 쓰고 인생을 관조하며 살고 있다.

사설

일본 열도 곳곳 곰 출몰

일본에 곰 비상이 걸렸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곰이 겨울잠에 들지 못하기도 하고 겨울잠에서 깨는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

일본 열도 곳곳에서 곰이 출몰하고 있다. 이미 곰 공격담만 2천건에 가깝고,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스키장 열 나무 사이로 검은 형체가 움직인다.

바로 곰이다. 어슬렁대던 곰이 갑자기 언덕 아래 사람들이 향해 뛰기 시작하자 깜짝 놀란 리프트 승객들은 고함을 지르며 경고한다.

아래쪽 사람들은 곰이 안 보이는 상태였다. 곰도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놀라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갔다. 곰은 일본열도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

곰 출몰 정보를 모아 제공 중인 한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벌써 1,700건이 넘는 목격담이 취합됐다. 장소도 다양해 산속은 물론...

론 주택가, 심지어 바닷가에도 나타났다. 특히 동북지역에선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빨리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곰이 출몰하는 빈도의 증가세가 빠른 편이다. 주민들은 외출하는 것도 무섭다. 올해는 봄부터 이런 상황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다.

일본 NHK 방송은 올 들어 곰에 의한 인명피해는 최소 8명에 달한다고 하며 그 중 1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2명이 더 곰에게 습격당해 숨진 걸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곰의 경우 3월에서 5월 사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온난화로 기상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서식지 내 먹이가 부족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추세라면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섬진강 5백리 '진경산수'

화폭 속에서 우겨진 대나무가 바람에 우수수 흔들린다. 들길을 따라 걷노라니 냇개 흐르는 강물 위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고요히 흘러간다.

저녁 어스름에 잠겨가는 마을의 고적한, 깊은 밤 길가에 휘영청 밝은 보름달 뜨고 새벽에 다시 잠겨가는 마을이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더라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산은 맑음이 누워 있고 강물은 낮게 흘러간다. 산과 강은 세월의 흐름에 불변하지 않고 의연하다.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되 과감한 생략을 통해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작품(죽림)과 사실적인 산과 물의 모습을 담은 그림(남녘) 등을 통해 섬진강 유역의 사계(四季), 아침 저녁과 밤 풍경을 담았다.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이 '관념산수'가 아닌 '진경산수'를 발전시킨 것처럼 그는 한국의 산수를 바로 누비며 '현대 진경'의 의미를 찾고 있다. 이 같은 그의 활동은 현장을 중시하는 사실성과 국토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한다.

이번 작품은 그가 과거에 주로 그렸던 산이 아니라 물길을 그렸다는 점에서 소재의 변화가 일단 눈에 띈다. 작가는 "인생을 폭넓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앉으나 서나 발뭇을 낮게 흐르는 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인생이란 높은 곳에 있는 적도 있지만 낮은 곳에 머무는 때도 있으니까요."라고 말한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독자제언

평온한 마을의 파수꾼 '마을 방범용 CCTV'에 관심

최근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마을 곳곳을 비추는 방범용 CCTV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서 범죄예방단팀으로서 CCTV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입니다. 범죄심리학으로 '누군가 보고 있다는 인식은 범죄의 의지를 꺾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을 진입로와 주요 지점에 설치된 CCTV는 잠재적으로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범죄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 신속한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목격자를 찾기 어려운 심야시간대나 농촌 지역에서 CCTV는 경찰의 제2의 눈이 되어 증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 등 농촌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 발생 시 마을방범용 CCTV는 수색범위를 좁히고 이들의 위치를 조기에 파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예방을 넘어 우리 이웃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보장 장치이기도 합니다. 안전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와 노후 정비 교체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이뤄질 때 비로소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을의 골목길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CCTV가 주민 여러분께 든든한 파수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내·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